

오늘의 계시판

제 560돌 한글날 경축행사 오전 10시 광주 시민회관

행사 (9일)
▲제 560돌 한글날 경축행사 = 오전 10시 광주 시민회관.
▲우리 싹쟁데이 홍보행사 = 오전 10시 호남고속도로 광주불꽃게이트. 전남농협지역본부 직원들이 홍보용 전단지 배부.

공연
▲백에 플루트 앙상블 제 5회 정기연주회=9일(월)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등 연주.
▲호·영남 춤 페스티벌=10일(화)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시립무용단·서영무용단·임지형 현대무용단 등이 한국무용·발레 등 공연.

전시
▲화요예술무대 '가을밤의 댄스 페스티벌'=10일(화)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박준희 발레단이 재즈댄스·발레댄스·라틴재즈댄스·뮤지컬재즈 등 공연.
▲순수미술전 원우회 = 13일까지 조선대 미술관.
▲제 8회 남도 질·폴 문화제 = 10일까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

광주일보가 실시한 31·32회 뉴스 퀴즈 추첨 결과, 백정숙씨가 1등에 뽑혔습니다. 백씨는 8일 광주일보 편집국에서 열린 상품 추첨식에서 진공 청소기의 주인공으로 당첨됐습니다.
31·32회 뉴스 퀴즈에는 엽서와 편지로 312명이 응모했으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답자 2명을 뽑아 순서에 따라 등수를 정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홍보 사원 박선영씨가 추첨을 했으며, 공정한 추첨을 위해 광주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임재홍 경사와 김정수 경사가 임회했습니다.
1등 ▲백정숙·순천시 금곡동
2등 ▲김근간·광주시 북구 동림동

뉴스퀴즈
33. 한국인이 지구촌 외교 수장인 유엔 사무총장에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 사람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사무총장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한 4차 예비 투표에서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안보리 이사국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얻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선출과 총회 인준이라는 공식 선출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번이 없는 사무총장으로 선출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현 외교통상부 장관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반기문 ②한승수 ③한명숙 ④정문찬
답: ①
참어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동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문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지난주 정답>
31회 - ① 이영훈, 32회 - ① 김선숙

함께 풀어봅시다 < 2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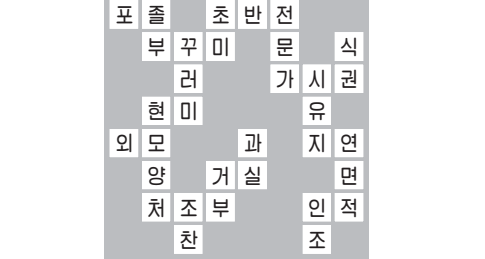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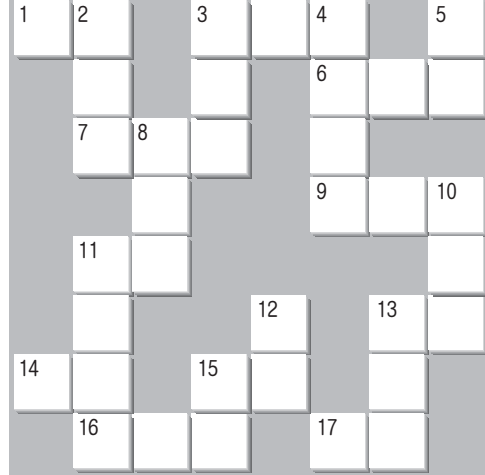
→ 가로 풀이

- 1.어떠한 결론이나 결과에 이른 까닭이나 근거. →원인,사유.
3.경망스럽고 야단스러운 말이나 행동. 예가 왜 이렇게 ~을 떨고 야단이야.
6.확기적인 사실로 말미암아 전개되는 새로운 시대. 에너지 혁명의 ~을 열다.
7.스스로 살길을 찾아 살아 나가는 능력이나 힘. ~을 기르다. 앞으로 ~이 없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9.사춘기에 성대에 변화가 일어나 목소리가 변하는 시기.
11.나라를 대표하는 도장. 또는 국권의 상징으로 국가적 문서에 사용하던 도장. →옥새,인새.
13.같은 종류의 사물 가운데 작은 규격이나 규모. ~ 라디오.
14.어떤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 좋게 여기는 감정.

- 15.날마다 규칙적으로 하는 일정한 일. 그는 점심을 먹은 후 산책하는 것을 하루 ~ 중 하나로 삼고 있다.
16.밭의 남편으로 삼을 만한 사람. ~을 고르다.
17.못 쓰게 되어 버린 물품. ~ 수집. ~을 재활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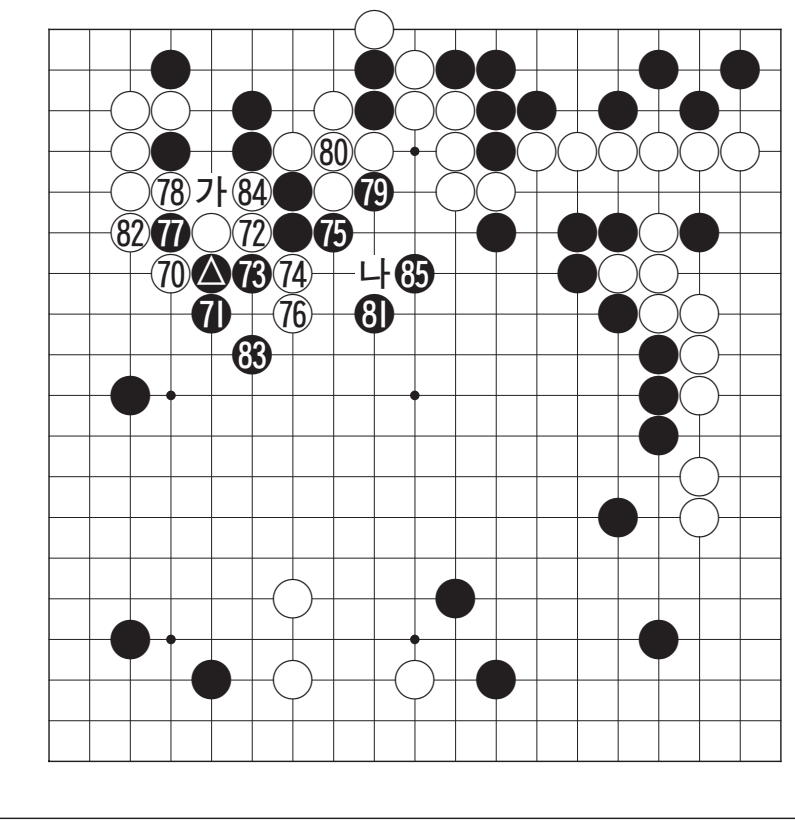
↓ 세로 풀이

- 2.자손에게 물려줄 형질을 지배하는 기본 인자. 디옥시리보핵산 또는 그것과 단백질과의 복합체로서 염색체 안에 일정한 순서로 배열돼 있음.
3.강한 인상을 주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힘. 연설이 대중에게 ~을 갖추려면 논리적이야 한다.
4.조선 고종 21년(1884)에 김옥균, 박영효 등의 개화당이 먼저 일과를 몰아내고 혁신적인 정부를 세우기 위해 일으킨 정변.
5.병원이나 학원 등과 같이 '원(院)' 자로 끝나



<함께 풀어봅시다 221회 정답>

- 15.일거리. ~이 떨어지다.
▲지난주 정답자 김태민·광주시 북구 용봉동 심진·광주시 북구 오치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문매체부



반격을 부른 응징 5보(70~85)
흑 72는 형세가 여의치 않음을 드러낸 수다. '가'로 지켜두는 것이 정수였다. 백이 84로 끊기만 해도 상변은 잡히고 만다. 상대가 우격다짐으로 담벼오자 흑 5단이 오히려 흔들리기 시작한다. 응징을 서두르려는 것이 백 70으로 짓히고 72로 틀어막는 약수를 두고 만다. 이렇게 모양이 나빠지면 실흑 흑 몇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반격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72로는 '참고도'의 백 1로 짓히고 흑 2로 끊을 수밖에 없을 때 3을 선수하고 7까지 공격하는 것이 바른 흐름이었다. 이것이라면 흑의 반격이 어려워 대세가 결정되었을 것이다.
백 74로 끊었으나 흑 79의 단수가 아프고 백 84까지 상변 흑몇점을 잡는 동안 흑 85로 중앙이 엄청나게 두터워져 주도권은 흑의 손으로 넘어갔다. 수순중 흑 81은 '나'로 호구쳐야 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제일화재, 영남일보 제압
서울 제일화재가 최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2006한국바둑리그 대구 영남일보와의 경기에서 3-1 승리를 거두고 4위에 올랐다.
제일화재는 안달훈 7단, 김지석 3단, 이세훈 9단이 잇따라 승리함에 따라 이희성 6단이 1승을 올린 영남일보를 가볍게 따돌렸다.
이 대국에서 안달훈은 영남일보 허영호 5단을 맞아 중반 전투에서 완벽한 승기를 잡아내며 212수 끝 백 불계승을 거둬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국바둑리그는 현재 4위에서 7위까지 최대 승점차가 4점 밖에 나지 않는 등 막판 순위다툼이 치열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748>
What kind of regulation, may I ask?
어떤 종류의 규정인지 물어봐도 됩니까?
A: We have a regulation here - rather unique one.
B: What kind of regulation, may I ask?
A: Only your birthday suit is allowed to enter this place.
B: Are you kidding me?
A: 저희는 이곳에서 상당히 독특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B: 어떤 종류의 규정인지 물어봐도 됩니까?
A: 이 곳을 입장하시려면 오로지 맨 몸이어야 합니다.
B: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birthday suit : (우스개) 알몸
rather : 상당히, 꽤
unique : 독특한
is allowed to ~ : ~하도록 허용되어 있다.
Are you kidding me? : 날 놀리니?
- Are you pulling my leg?, Are you having me on?
You are kidding me! : 농담마라!
- No kidding? : 정말이야? 농담 마라, 설마!
No kidding!: 농담이 아니다!

오하이오 니혼고 <748>
勇氣(ゆうき)が出(で)ない
용기가 안나
A: まいちゃんに告白(こくはく)した?
B: あきらめようかと思(おも)ってる。
A: なんて? 根性(こんじょう)ないなあ。
B: 勇氣(ゆうき)が出(で)ない。
A: 마이짱에게 고백했어?
B: 포기하려던 참이야.
A: 왜? 끈기가 없구나.
B: 용기가 안나.
あきらめる: 포기하다
根性(こんじょう): 어려움을 참고 뭔가 이루는 강한 정신력을 나타냄
根性がある: 강한 정신력이 있다
根性が足(た)りない: 정신력이 부족하다

니하오 풍구워 <466>
我藥取药
약을 타려고 합니다
A: 我藥取药. 药点儿药, 多体患药余好的..
B: 我藥取药.
C: 这药片儿. 天凉凉, 每次吃两片儿..
A: 这药片儿의 약 타려고 藥 藥房에 藥房 藥房입니다.
B: 藥房 타려고 합니다.
C: 藥房타려고요, 藥房 3번, 藥房 2번씩 藥房요.

한자 이야기 <366>
三韓(삼한)
석삼, 나라이름 한
한반도(韓半島) 북쪽에 부여(夫餘), 고구려(高句麗), 옥저(沃沮)가 있을 때, 남쪽에는 마한(馬韓), 진한(辰韓), 변한(弁韓)이라는 삼한(三韓)이 있었고 동쪽에는 동예(東濊)가 있었다.
서쪽에 있는 마한은 낙랑(樂浪)과 왜(倭)와 접해 있고, 동쪽에 위치한 진한은 예맥(濊貊), 마한과 접해 있으며, 남쪽의 변한은 왜와 접해 있었다고 한다. 이 남쪽의 나라들은 모두 한족(韓族)이었는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삼한으로 나누어졌던 것이다. 삼한의 나라들은 중국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북방세력(北方勢力)에 비해 강력한 통일국가 체제를 이루는 시기가 늦어졌다. 하지만 중국과는 다른 문화와 생활방식 생각을 가지고 그들만의 문화를 발달시켰다. 중국에 그 존재가 처음 알려졌 것은 기원전 2세기 무렵으로, 조선(朝鮮) 말기 중왕이 위만(衛滿)에 밀려 한(韓)의 땅으로 망명한 때부터이다.
삼한은 초기에는 청동기(靑銅器) 문화를 꽃피웠으나, 난리를 피해 진한으로 피난 온 진(秦)나라 사람들로 부터 철기(鐵器) 문화를 받아들여 독자적인 문화와 지배체제를 형성하였다. 삼한 사람들은 말과 송옥이 비스듬히 뒷날 우리 한민족 형성의 바탕이 되었으며, 삼국시대의 뿌리를 형성하였다.